

통역사 전문성에 따른 동시통역 비교: (비)유창성을 중심으로

최 문 선
(이화여대)

1. 서론

서구에서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 이론(expertise theory)의 관점에서 통역의 전문성(expertise in interpreting)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수행되었다(Ivanova 1999; Liu, Schallert, & Carroll 2004; Moser-Mercer 2000; Moser-Mercer, Frauenfelder, Casado, & Kuenzli 2000 등). 전문가 이론에 따르면 전문가란 과제 영역에서 장기간의 경험을 축적하여 일관되게 뛰어난 수준의 수행을 나타내고 필요 시 전문지식에 접근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의도적 연습을 실행하고 분명한 목표 설정과 피드백에 개방된 태도를 지니는 특징을 보인다(Tiselius 2013: 2). 최근에는 통역 전문성을 인지적 전문성(cognitive expertise)과 사회문화적 전문성(sociocultural expertise)의 상호작용 또는 결합의 결과물로 인식할 때 통역 전문성이라는 복잡한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는 주장(Sunnari & Hild 2010)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통역 전문성에 대한 관점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자는 지식, 기술, 실무, 태도의 습득으로 설명되는 통역사 개인 내부의 변화, 그리고 후자는 전문가 문화와 커뮤니티(professional culture and community)의 일원이 되어 가는 과정을 가리킨다(Sunnari & Hild 2010: 40).

통역의 전문성을 위와 같이 구분할 때 본 연구는 인지적 전문성의 관점에서 동시통역의 전문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동시통역은 일반적인 언어 능력과는 구별되는 전문적인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연마하고 습득하기 위해 동시통역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문통역사(expert)의 동시통역 수행은 통역 훈련 과정에 있는 초보통역사(novice)나 통역 교육을 받지 않은 이중언어자와 같은 비전문가(non-expert)와는 다른 특징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전문통역사와 초보통역사, 혹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통역 능력과 통역 수행의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전문통역사는 출발어의 표층 구조에 의존도가 높은 초보통역사와는 달리 보다 심층적인 정보 처리를 수행하며(Sunnari 1995), 처리하는 의미 단위가 더 길고 의역을 많이 한다(McDonald & Carpenter 1981)고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하여 통역결과물의 완결성도 초보통역사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Dillingier 1994; Lee 2011). 또한 원문의 언어적 복잡성에 영향을 받는 초보자와는 달리 전문통역사는 원문의 정보 밀도에 따라 원문의 언어적 복잡성이 제약으로 작용하거나 그렇지 않기도 하였다(Hild 2011). 또한 단순 이중언어자인 비전문가의 동시통역을 분석한 연구(이태형 2014, 2015)에 따르면 비전문가의 동시통역은 매우 긴 휴지로 인하여 원문 내용이 상당 부분 생략되는 ‘간헐적’ 통역의 특징을 보였다.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전문통역사와 초보통역사 혹은 비전문가의 통역을 비교함으로써 통역의 전문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통역의 유창성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초보자의 통역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차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다. 유창성은 발화 숙달도(oral proficiency)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전반적인 발화 숙달도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Park 2016:1) 통역 결과물의 품질평가에 매우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며, 통역에 포함된 비유창성 요소는 통역 평가에서 오류로 간주된다(Lee 2008:

173). ‘전문가와 학생을 가르치는 유일한 차이는 유창성’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Altmann 1994: 36) 사용자의 통역품질 평가 기준 중 정확성, 충실성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이 유창성이다(Kurz 1993). 상대 언어를 모르는 연사와 청중은 결국 동시통역담화의 형태(form)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통역결과물의 유창성과 자연스러움이 통역품질 평가의 기준이 된다(Yagi 2000: 522). 통역의 유창성 혹은 비유창성이 통역의 내용 정확도, 완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통역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 평가에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Collados Aís 1998; Rennert 2010).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통역사라면 비유창성을 성공적으로 제어하여 유창한 통역 결과물을 내기 위한 능력을 갖추었거나 비유창성을 제어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서 Moser-Mercer(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통역 적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제 발굴을 위해 전문가와 초보자가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 예상하는 과제를 선정, 수행하게 한 실험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전문통역사가 지연 청각 피드백(delayed auditory feedback)과제에서 분명한 우세를 나타냈다. 지연 청각 피드백 과제는 통역 시 자기감시 능력을 보여주며, 그 효과는 발화속도, 억양이나 강세, 음절이나 음소의 누락, 대체, 반복과 같은 발음 오류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통역사가 통역에 대한 자기감시(output monitoring) 능력이 뛰어나며 이는 통역 결과물이 운율적 오류가 적은 특성을 갖춘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처럼 전문통역사가 갖춘 비유창성을 제어하는 능력 및 기술은 통역 결과물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 통역사의 동시통역 수행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다양한 측면 중 아직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창성의 측면에서 전문가와 초보자의 동시통역 수행을 비교함으로써 통역결과물의 유창성 면에서 전문가적인 동시통역 수행의 특징을 규명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어지는 2장에서 유창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통역의 유창성/비유창성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전문가와 초보자의 동시통역 수행 비교를 위한 연구 설계와 연구 방법에 대해 기술한 후 4장에서 연구 결과와 그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Fillmore(1979: 51)는 유창성을 네 가지 차원에서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유창성이란 휴지 없이 오래 말할 수 있는 능력, 결속력 있고 논리적이며 ‘의미적으로 밀집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맥락에 맞는 적절한 내용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언어 표현을 창조하거나 은유적인 표현을 창작하는 등 창의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모국어 화자의 유창함이라는 개념이 뜻하는 바를 기술한 포괄적이고 설득력있는 정의이지만 원문에 의존하여 산출되는 통역결과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제2언어 사용의 유창성을 다룬 Lennon(1990)은 유창성을 광의의 유창성과 협의의 유창성으로 구분하였다. 광의의 유창성은 전반적인 구술 능력(oral proficiency)을 의미하며, 협의의 유창성은 구술 발화에서 나타나는 속도(speed)와 연속성(smoothness)을 의미한다고 하였다(1990: 389). 후속 연구에서 Lennon(2000: 26)은 유창성을 ‘실시간 정보처리라는 시간적 제약 하에서 생각이나 소통 의도를 빠르고, 중단없이, 정확하고, 명쾌하고, 효율적으로 언어로 변환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이를 통역 상황에 적용하면 ‘실시간 정보처리라는 시간적 제약 하에서 [연사의] 생각이나 소통의도를 빠르고, 중단없이, 정확하고, 명쾌하고, 효율적으로 [도착어] 언어로 변환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창성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찾기는 어렵지만 전술한 유창성에 대한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속도’와 ‘연속성’은 유창성에 대한 정의에서 공통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장경희 외, 2014: 18). 역으로 말하면 비유창성은 ‘속도’가 느려지거나 ‘연속성’이 단절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Gosy(2007: 93)¹⁾ 비유창성이란 ‘말의 흐름을 중단시키면서 발화에 명제적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연속성의 단절을 의미하면서 명제적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잉여적 요소라는 점을 뜻한다. 이처럼 유창성과 비유창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의 개념에 대한 다른 관점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통역을 다룬 선행연구에는 통역의 유창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휴지, 발화속도, 조음속도, 평균 연속발화 길이와 같은 운율적 혹은 시

1) Bakti(2009: 4)에서 재인용.

간적 변수와 숨소리, 머뭇거림, 잘못된 문장 시작, 수정, 반복 등과 같은 비유창성 현상이 언급되었다(Cecot 2001; Mead 2005; Rennert 2010). 이러한 요인을 포함하여 동시통역의 유창성을 다룬 선행연구를 분류하면 크게 1)유창성/비유창성 현상을 기술적으로 분석한 연구, 2)원문의 유창성 특징과 통역결과물의 유창성 간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 3)통역결과물의 유창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로 구분된다.

우선 유창성/비유창성 현상을 기술하고 분석한 연구로서 Petite(2005)는 영어에서 불어와 독어로 통역된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비유창성 현상 중 수정(repair) 현상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Levelt(1983, 1989)의 자발화에서 나타나는 수정 유형 분류를 동시통역에 맞추어 변용하여 통역문에 나타나는 수정의 원인과 표지 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역사는 통역문의 적합성을 높이거나 문장을 완결하기 위해 어순을 뒤바꾼다든지 단어 발화 도중에 수정을 하는 등 통역의 수정은 단순한 오류의 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통역사의 사과처럼 수정의 분명한 표지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and)’로 연결하거나 단순 병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이 아닌 듯이 위장하기도 하였다. 수정의 원인과 관련하여 두 가지 차원이 관찰되었다. 첫째, 원문과의 유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정으로 이를 원문에 기인하는 수정(input-generated repairs)로 분류하였다. 둘째, 청자 입장에서 보다 관련성 높은 통역을 하기 위한 수정으로 이를 통역결과물에 기인하는 수정(output-generated repairs)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시통역에서 나타나는 수정 현상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Bakti(2009)는 영어에서 헝가리어로의 BA 방향 동시통역 결과물에 나타나는 비유창성 현상을 관찰하고 Gosy(2004, 2005)의 비유창성 구분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결과 문장 재시작과 문법 오류가 가장 자주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이는 형태통사론적 발화계획수립에 있어서의 문제, 어휘 접근과 조음계획수립 간의 조정 과정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국지연(2016)은 학부생 8명이 수행한 한독 순차통역에서 나타나는 자기발화 수정 양상을 분석하여 유형별 발생빈도를 집계하였다. 그 결과 내적 수정(휴지, 단순 반복, 음절 장음화)이 외적 수정(보완, 대체)보다 현저히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원문 특징이나 원문의 언어, 통역 방향 등 원문 관련 변수가 통역

결과물의 유창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Tissi(2000)는 학생통역사 10명이 수행한 독어-이탈리아어 동시통역 결과물의 비유창성 현상을 무음휴지(silent pauses)와 비유창성 요소(disfluencies)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ST에 비해 TT에 무음휴지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고, ST에는 없었던 2.5~5초 혹은 5초 이상의 매우 긴 휴지가 TT에 다수 포함되었다. 또한 ST에 비해 TT에서는 자음/모음 장음화 현상(vowel and consonant lengthening)이 자주 발견되었고, 문장 시작 오류(false start)는 TT에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ST와 TT 간의 체계적 대응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Mead(2000)는 학생통역사 15명의 이탈리아어-영어 양방향 순차통역에서 나타나는 휴지를 관찰함으로써 통역방향별 무음휴지(silent pause)와 발성휴지(filled pause) 발생 양상을 비교하였다. 정량적 분석 결과 무음휴지 면에서는 통역 방향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참여자들의 B언어인 영어로 통역할 때 발성휴지 횟수와 총 휴지시간이 현저히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참여자들의 자신들의 A언어로 통역할 때 더 유창함을 보였다.

Cecot(2001)은 전문통역사 11명으로 하여금 영어-이탈리아어 방향으로 속도를 달리한 2개의 ST를 동시통역하도록 하였다. 통역사들은 연사의 무음휴지 경향(분절 휴지 및 수사적 휴지)을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망설임 휴지(hesitation pause)의 경우에는 ST와 대응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원문 속도가 높을수록 발성휴지는 감소하였다. 앞서 두 연구와는 달리 ST의 특징 중 TT의 유창성과 관련성을 가지는 요소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더하여 통역실험 후 참여자에게 주관적 평가를 요청하는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결과 대부분이 통역 시 휴지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통역사가 자신의 통역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Van Besien과 Meuleman(2004)은 원문(ST)의 비유창성 현상인 연사의 오류 및 수정이 동시통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통역사는 연사의 미수정 오

2) 휴지(休止)라 함은 말이 중단되는 쉼을 뜻하는데 이는 조음활동이 아예 중단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 ‘아’, ‘음’과 같은 망설임의 표현이나 음절을 길게 늘어 발음하는 경우처럼 음성신호가 발생하지만 발화의 연속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포괄하여 지칭한다. 이를 발성휴지라고 한다.

류를 수정하여 통역하였으며,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 발화물은 생략하고 수정된 결과물만 통역하였다. 그 결과 연사의 오류 및 수정의 대부분이 청중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연사가 수정하는 유형(오류 수정인지 적합성 수정인지)나 수정의 시점, 편집표현의 유무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연사가 수정을 위해 재시작(restarting)하는 방식은 수정의 성공적인 통역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각적 수정(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이나 예측적 수정(직전에 발화한 한, 두 단어를 반복)의 경우 대체로 통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새로운 문장을 시작(fresh start)하는 경우 통역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사의 발화속도가 빠를수록 수정이 잦았고 상대적으로 느린 발화속도를 보인 통역사는 수정이 적었다는 점도 특기하였으며 이는 통역 스타일의 차이인 것으로 보였다.

Martellini(2013)는 발화의 억양, 강세, 리듬이 어우러진 결과물로서 형성되는 운율(prosody)이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발화에 필수적(2013: 62)이라고 보고, 통역의 TT에서 나타나는 운율 현상이 ST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밝히고자 전문통역사 6명이 수행한 독어-이탈리아어 동시통역 결과물의 발화속도, 휴지와 음절장음화, 억양, 탁립이라는 운율 요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발화속도 면에서 ST보다 TT의 발화속도가 더 느렸으며, 이는 EVS 발생, 압축, 분절, 재표현(condensation, segmentation, reformulation)과 같은 동시통역 전략을 활용한 결과 더 적은 수의 단어를 산출하게 된 결과로 보였다. 휴지와 관련하여 ST에 비해 TT에서 휴지의 빈도는 더 낮았으나 길이는 더 길었다. 빈도는 낮지만 길이가 더 길었다는 것은 휴지 시간 동안 통역사의 정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억양과 관련하여 TT에서 종결부에 평조(level boundary tone)가 많았다는 점은 통역사의 억양이 일반적인 발화와 비교했을 때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Wang과 Li(2015)는 중·영 동시통역에서 나타나는 휴지의 특성과 원인을 규명하고자 5명의 전문통역사와 4명의 학생통역사로 하여금 동시통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물에서 나타나는 휴지 현상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ST에 비해 TT의 휴지의 횟수는 적었으나 길이는 더 길었다. 휴지의 분포 면에서는 문장 직전, 절 직전과 같이 주요한 문장 연결점(sentence junctures)에 위치한 휴지가 많았으나 절 내 휴지 역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부자연스러

운 휴지의 경우 대부분이 동시통역 전략을 선택하고 구사하는데 할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개념화나 문장구성에 휴지를 필요로 한 초보자에 비해 전문가는 모니터링과 통역 전략 채택을 위해 휴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Won(2011)은 전문통역사 6인 대상의 동시통역 실험을 실시한 후 자기 감시(self-monitoring) 유형이 통역 방향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자기 감시는 통역 결과물의 오류인 말실수를 줄이기 위한 기제로 작용하며 오류 발생시 이를 수정, 재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Won 2011: 214)에서 통역사의 자기 감시 능력은 통역 결과물의 유창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통역 방향성을 독립변수로, 자기 감시 유형을 종속변수로 놓은 이 연구는 통역사들이 통역 방향별로 가장 집중하는 언어 처리의 측면을 밝히고자 자기감시 현상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E-K 방향, 즉 L2에서 L1으로 갈 때 훨씬 수정을 많이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L2에서 L1으로 갈 때는 미리 발화 계획을 세우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쓰기 보다는 일단 통역을 시작한 후 수정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문선(2015)은 통역 방식(mode) 따라 학습자의 통역 수행에서 나타나는 비유창성 양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순차통역보다 동시통역의 발화속도가 더 느리게 나타나 동시의 발화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통념과 반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순차통역보다 동시통역의 발화율(phonation/time ratio 혹은 PTR)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순차통역의 경우 원문 발화율보다 높았으나 동시통역 발화율은 원문보다 낮았다. 또한 순차통역보다 동시통역에서 휴지가 더 자주 발생하였다. 학습자의 경우 순차보다 동시통역의 유창성이 크게 떨어지게 나타난 이 연구 결과는 동시통역이 더 습득하기 어려운 기술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민(2016)은 통역의 방향성이 순차통역의 유창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통역대회 참가한 통역 전공 학생의 한중, 중한 순차통역을 대상으로 휴지, 수정, 반복의 횟수를 비교한 결과 휴지와 수정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반복의 경우에만 중-한 방향의 통역에서 발생한 빈도가 유의하게 많았다. 즉 통역의 방향성과 유창성간 관계가 무관한 것은 아니겠으나 도착어 유창성은 통역 방향성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모국어로 통역하는 것은 외국어로 통역하는 것보다 꼭 유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역결과물의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탐구하기 위하여 통역결과물의 유창성 관련 변수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들이다.

Han(2015)은 인간 평가자의 유창성 평가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준언어적 특성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32명의 전문통역사가 영-중 동시통역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의 유창성을 9명의 전문가가 평가하였다. 유창성 점수를 통역결과물의 준언어적 자질 9개와 비교한 결과 발화속도, 조음속도, 평균 발화 길이(mean length of run)가 인간 평가자의 유창성 평가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단계별 판별분석 결과 발화속도와 조음속도가 우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평가자들은 얼마나 말을 오래 하는가를 기준으로 유창성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Lin, Lv와 Liang(2018)은 통역사의 언어숙달도, 작업기억, 통역방향이 통역결과물의 유창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학생통역사 22명이 수행한 영-중, 중-영 동시통역 결과물에서 나타나는 비유창성 지표의 빈도와 통역사의 언어숙달도, 작업기억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역사의 작업기억이 통역결과물의 유창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로 판명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통역의 유창성 관련 선행연구 조사 결과는 유창성/비유창성 현상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 등의 차이로 인하여 뚜렷한 경향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일례로 통역방향별 유창성의 차이를 고찰한 연구들(Mead 2000; Won 2011; 이민 2016) 사이에는 상호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복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ST에 비해서 TT에는 긴 휴지(2초 이상)가 더 자주 나타난다는 점(Tissi 2000; Wang & Li 2015), 그리고 ST에 비해 TT에서 두드러지는 수정의 유형은 재시작(restart) 혹은 문장 시작 오류(false start)라는 점(Bakti 2009; Tissi 2000)을 복수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결론으로 설득력 높은 가설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Wang과 Li(2015)에 일부 다루어진 전문가와 초보자 비교 내용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연구가 전문통역사 혹은 학생통역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전문가-초보자 비교를 통해 전문성에 따른 동시통역의 유창성 특징을 밝히는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3. 연구 설계

3.1 분석 대상 말뭉치

본 연구는 통역사 전문성에 따라 동시통역의 (비)유창성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동일한 ST에 대한 전문가와 초보자의 영-한 동시통역을 비교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ST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이루어진 미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다. 약 60여분에 걸쳐 진행된 본 행사 중 초반의 모두 발언 7분(이하 ST1)과 질의응답 중 7분3(이하 ST2) 분량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가 통역 코퍼스는 당일 본 행사를 TV와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한 방송국에서 제공했던 동시통역이다. 총 4개 방송국에서 제공된 동시통역을 해당 방송국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보, 전사하여 전문가 TT 4개를 확보하였다. 초보자 통역 코퍼스는 2018년 8월 별도의 실험을 통해 통역대학원에서 동시통역을 한 학기 이수한 학생 4명4이 동일한 텍스트를 동시통역한 결과물로서 역시 전사하여 초보자 TT 4개를 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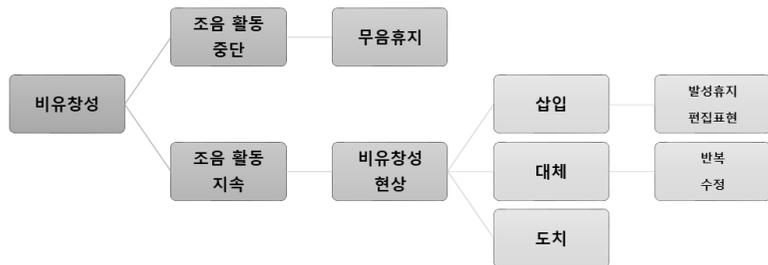
학생이 참여한 통역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통역 전 사전준비 시간을 제공하였다. 최대한 전문가 통역 코퍼스가 산출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경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실험에 앞서 연구자가 행사의 기본 사항을 설명한 후, 행사와 관련된 배경지식과 용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행사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 자료 5건을 제공하여 약 20분간 학생들이 읽어보고 통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ST1의 본격적인 통역 시작에 앞서 연설 형식과 행사 분위기를 익힐 수 있도록 시작부터 약 40초간은 통역하지 않고 청취만 하였고 이어지는 뒷부분부터 통역하였다. ST2의 통역에 앞서서도 질의 응답이 진행된 현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작 후 약 60초 간 청취만 하다가 이어지는

- 3) ST1과의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ST2는 기자들의 질문을 제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 부분만으로 구성하였다.
- 4) 본 연구가 진행된 2018년 8월 현재 동시통역을 한 학기 이수한 통역번역대학원 재학생 대상으로 실험참가자 모집 공고를 냈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시한 4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는 임의표본추출법에 해당하며 해당 표집법이 갖는 모든 한계를 그대로 지닌다.

부분부터 통역을 시작하였다.

3.2 분석 항목

2장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통역의 (비)유창성을 평가하고자 할 때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가능하다(Han 2015: 32). 첫째는 인간 평가자에 의한 평가로서 주관적인 인상에 의존하는 총괄적(holistic) 평가나 유창성 평가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적(analytic) 평가를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휴지, 수정 등과 같이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현상 혹은 준언어적 매개변수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화가 용이한 두 번째 방법을 택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측정 대상이 되는 현상을 특정해야 한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대로 ‘속도’와 ‘연속성’은 유창성에 대한 정의에서 공통되는 핵심 요소이며, 비유창성은 ‘속도’가 느려지거나 ‘연속성’이 단절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역결과물의 속도와 연속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통역결과물의 속도는 각 통역결과물의 분당 발화 음절 수(spm)를 측정하였다. 연속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에서 분류한 비유창성 현상을 고려하였다. 통역학의 관련 선행연구와 심리언어학 문헌(남길임 2011; 최문선 2015; Cecot 2001; Harley 2014; Mead 2005; Rennert 2010; Petite 2005; Tissi 2000)에 제시된 비유창성 요소를 종합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비유창성⁵⁾의 분류

5) Harley(2014: 430)는 ‘non-fluencies’라는 용어로 유창성의 반대 개념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이를 무음휴지와 발성휴지, 기타 비유창성 현상으로 구분하였다. 본고에서는 구분을 위해 유창성과 반대되는 개념을 ‘비유창성’으로, 무음휴지 외의 다양한 비유

<그림 1>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비유창성은 크게 음성신호의 유무를 기준으로 조음활동 중단과 지속으로 나눌 수 있다. 조음활동 중단은 무음휴지로 나타난다. 조음활동 지속은 보다 다양한 양상을 띠며 본고에서는 이를 ‘비유창성 현상’이라 지칭하였다. 비유창성 현상은 본래 발화의 문법적 흐름을 끊고 단어, 구와 같은 분절적 요소, 혹은 음절이나 특정 음성 등 비분절적 요소가 군더더기로서 단순히 첨가되는 삽입 현상, 선행 표현을 후행 표현으로 대체할 때 나타나는 대체 현상, 일반적인 어순과 달리 특정 성분의 위치 변동으로 생기는 도치 현상으로 세분된다.⁶⁾ 삽입 현상은 ‘어’, ‘아’, ‘음’과 같은 망설임의 표현(vocalized hesitation)⁷⁾이나 음절 장음화(vowel/consonant lengthening)를 포함하는 발성휴지(filled pause), ‘나는 오늘, 아니다, 어제 그녀를 만났다⁸⁾’에서 ‘아니다’와 같이 자기 발화를 편집하는 기능을 지니는 편집표현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어 구어에서는 시간별기, 머뭇거림, 주저함을 표현하는 ‘이/그/저’(박근영 2006), ‘뉘’(송인성 2013), ‘이제’와 같은 담화 표지를 망설임을 표현하는 발성휴지로 분류할 수 있고, 본고에서는 ‘망설임 표지’라는 표현으로 총칭하고자 한다. 대체 현상은 대체되는 표현과 대체하는 표현이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경우 반복, 상이한 경우 수정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도치는 ‘나는 그녀를 만났다 어제’라는 문장에서 원래 동사 앞에 위치해야 하는 시간 부사가 문장 맨 끝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같이 부자연스러운 어순이 나타난 경우를 지칭한다.

동시통역의 비유창성 지형이 그림1과 같다고 볼 때 통역 TT에 포함된 비유창성을 관찰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 항목은 각 범주의 최우측에 위치한 항목들, 즉 무음휴지, 발성휴지, 편집표현, 반복, 수정, 도치 현상이 될 것이다. 이 중에서 발생 유무라는 이진값만 갖는 여타 항목과는 달리 무음휴지는 시간적 변수로서 연속적인 값을 가지므로 어느 정도의 길이를 기준으로 무음휴지를 측

창성의 구체적 양상을 ‘비유창성 현상’으로 총칭하였다.

- 6) 삽입, 대체, 도치라는 범주의 명칭은 남길임(2011)을 따랐으나 통역결과물에서 나타나는 비유창성 현상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추가하여 조정하였다.
 7) ‘어,’‘음;’‘아’와 같이 어떤 어휘와도 연관되지 않는 단음절 소리를 ‘filler’라고 지칭하며(Urizar and Samuel 2014: 339), 한국어로는 ‘삽입표현(남길임 2011)’, ‘간투사(최문선 2015)’로 번역된 바 있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 분류의 기준이 달라 이러한 명칭의 개념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8) 예문은 남길임(2011: 121)에서 인용하였다.

정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휴지가 비유창성을 높이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Cecot 2001: 58; Mead 2005: 48)을 감안하여 비유창성을 심화시키는 휴지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고자 너무 짧은 휴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일반적으로 5~8단어마다 200~250ms 이상의 휴지가 발생하며(Harley 2014: 430), 통역사들의 동시통역 회상구술 결과를 보면 짧은 휴지는 호흡과 정상적인 발화 분절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볼 수 있다(Wang and Li 2015). 이에 인지적으로 휴지임이 감지되는 길이가 1.1초 정도(최문선 2015)라는 점, 일반적으로 휴지라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1초 이상(Shreve, Lacruz and Angelone 2011)임을 감안하여 1초 이상의 무음휴지를 관찰하였다. 음성편집기(Audacity)를 이용하여 휴지의 위치를 확인하고 길이를 측정하였다. 나머지 항목들, 즉 발성휴지, 편집표현, 반복, 수정, 도치 현상은 전사물을 기준으로 관찰하고 음성 자료를 들으면서 재확인한 후 집계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측정, 집계한 통역결과물의 (비)유창성 특징을 그림1의 분류에 따라 발화속도(각 통역결과물의 분당 발화 음절 수), 조음활동 중단(무음휴지), 조음활동 지속(비유창성 현상)으로 묶어 분석하였다.

4. 결과 및 논의⁹⁾

4.1 발화속도

전문가와 초보자 통역결과물의 발화속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비교를 위하여 원문의 발화속도도 괄호 안에 함께 제시하였다.

<표 1> 발화속도

전문가	ST1 (206.2)	ST2 (244.9)	초보자	ST1 (206.2)	ST2 (244.9)
전문가1	262.2	261.6	초보자1	184.7	170.7
전문가2	330.8	327.8	초보자2	264.6	283.2
전문가3	291.5	298.1	초보자3	282.0	273.1
전문가4	345.3	358.8	초보자4	242.9	228.2
평균	307.4	311.6	평균	243.5	2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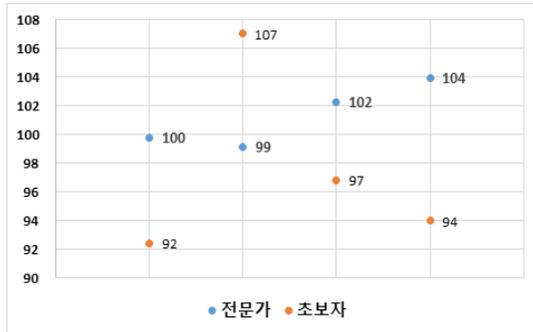
*단위: 분당음절수(spm)

평균 발화속도를 기준으로 전문가 집단의 발화속도는 약 310spm 이상으로 초보자 집단의 241spm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따라서 발화속도 면에서 전문가는 초보자에 비해 상당히 유창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균적인 한국어 발화속도¹⁰⁾를 감안하면 전문가 집단은 일반적으로 뉴스방송에서 기대되는 발화속도에 가깝게 통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문의 발화속도를 감안할 때 두 집단 간 또 하나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모두 발언인 ST1은 사전에 작성된 원고를 일정한 속도로 낭독하는 형식의 발화이었던 반면 질의응답에 해당하는 ST2는 전적으로 원고 없이 즉석에서 이루어진 자유 발화였다. 동일 연사의 발화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식적 차이로 인하여 ST1에 비하여 ST2에서는 연사의 발화속도가 약 120% 증가하였다. 이처럼 ST의 속도가 증가할 때 통역사의 발화속도는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그림 2>).

9) 본 연구는 동일 원문의 동시통역 시 전문가와 초보자의 통역결과물에서 나타나는 유창성 양상을 비교하는 데에 집중하였으므로 원문 변수가 통역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힌다.

10) 김한식(2012: 18)의 연구에서 한국어 TV 뉴스의 발화속도가 평균 약 360spm으로 측정되었고, 심홍임(2004: 198)의 연구에서는 한국인 표준어 화자의 말하기 속도가 약 248spm, 표준어 화자의 읽기 속도가 306spm, 방송인 읽기 속도가 약 347spm로 측정되었다.



〈그림 2〉 ST 속도 증가에 따른 통역 발화속도 증감율(%)

〈그림 2〉에서 점이 100(%)에 가까울수록 ST1과 ST2의 통역결과물 발화속도 사이에 차이가 적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사의 발화속도가 높아질 때 전문가 집단의 통역 속도는 거의 동일(100%, 99%)하거나 소폭 증가(102%, 104%)하는데 그친 반면 초보자 집단의 경우 통역의 발화속도가 소폭 혹은 더 큰 폭으로 감소(92%, 94%, 97%)하거나 더 큰 폭으로 증가(107%)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ST의 속도가 증가할 때 전문가들의 발화속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초보자들의 경우 감소하거나(92%) 증가하는(107%)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전문통역사의 경우 원문의 발화속도가 변화하더라도 일정한 통역속도를 유지하는 반면 초보자는 원문 발화속도의 영향을 받아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내었다.

4.2 조음활동 중단: 무음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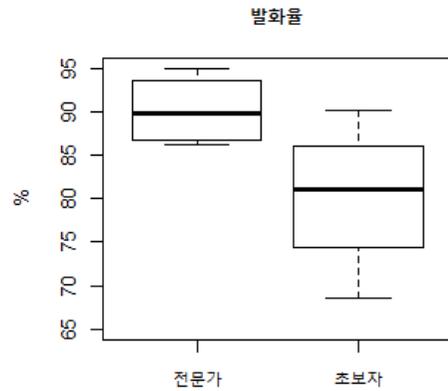
전문가와 초보자의 통역결과물에 포함된 비유창성을 증가시키는 무음휴지(1.0초 이상)를 측정하였다. 휴지의 빈도, 평균 휴지 길이, 총 휴지 길이를 산출하였고, 전체 발화시간에서 휴지가 차지하는 시간을 제외한 발화율도 함께 산출하였다.

〈표 2〉 무음휴지

	총 휴지 빈도(회)	평균 휴지 길이(초)	총 휴지 길이(초)	전체 발화시간(초)	발화율(%)
전문가1	52	2.1	104.8	766	86.3
전문가2	24	1.6	38.4	770	95.0
전문가3	31	1.9	58.4	755	92.3
전문가4	48	2.0	97.4	760	87.2
전문가 평균	38.5	1.9	74.7	762.8	90.2
초보자1	105	2.3	237.3	754	68.5
초보자2	70	2.0	136.8	765	82.1
초보자3	47	1.6	75.6	766	90.1
초보자4	60	2.5	148.8	750	80.2
초보자 평균	70.5	2.1	149.6	758.8	80.2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휴지의 빈도 면에서 초보자 집단의 통역결과물에는 전문가 집단의 거의 2배에 이르는 무음휴지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휴지의 평균 길이 면에서는 전문가(1.9초)와 초보자(2.1초) 간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휴지 길이는 전문가와 초보자를 구분하는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통역 교육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의 동시통역에서 매우 긴 휴지가 발생(이태형 2014, 2015)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균적인 휴지 길이는 통역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일반 이중언어자를 구분하는 특징으로서는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무음휴지 1회의 길이 면에서는 전문가와 초보자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휴지 빈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벌어졌고 이는 결국 초보자 통역결과물의 발화율을 크게 떨어뜨리게 되었다. 전문가 집단의 발화율은 평균 90.2%, 초보자 집단의 발화율은 평균 80.2%로 나타났다. 결과의 시각화를 위해 전문가와 초보자 집단의 발화율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그림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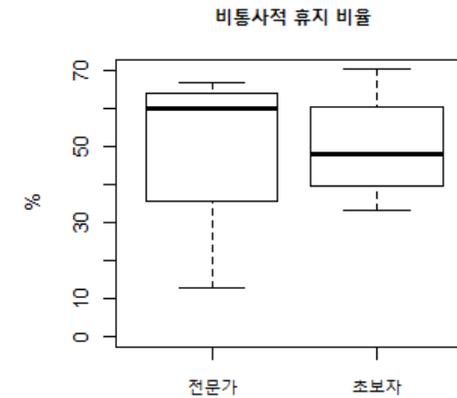


〈그림 3〉 발화율(%)

박스플롯의 모양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문가의 경우 발화율이 대체로 크게 나타나는 반면 초보자의 통역결과물 간에는 발화율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일수록 발화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전문가 간에 고른 발화율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초보자의 통역은 전반적으로 발화율이 낮고 통역시간 수행 수준도 큰 차이를 보여 발화율 면에서 신뢰도(reliability)가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발화율은 통역결과물의 완결성에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화율이 높을수록 통역결과물의 완결성도 높아질 확률이 높으므로 본 연구에서 전문가의 발화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전문가의 통역완결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Dillinger 1994; Lee 2011)와 일맥상 통한다.

휴지의 빈도 및 길이에 더하여 휴지가 발생한 위치에 따라 전문가와 초보자의 통역결과물을 비교하였다. 휴지의 통사적 위치는 Mead(2005)의 구분을 기초로 통사적 휴지(메시지 단위 간 휴지)와 비통사적 휴지(메시지 단위 내 휴지)로 분류하였다. 통사적 휴지는 문장 경계, 절이나 구의 경계, 절 맨 앞에 위치한 접속어 직후에 나타나는 휴지를 말하여 발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격이 덜하다. 반면 비통사적 휴지는 절 안, 구 안과 같이 발화의 흐름을 끊는 휴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후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비유창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최문선 2015: 192).

전문가와 초보자의 통역결과물에 포함된 비통사적 휴지의 비율(전체 휴지 중 비통사적 휴지의 빈도)을 산출한 결과 아래의 <그림 4>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4〉 비통사적 휴지

앞서 무음휴지 시간에 기초한 발화율은 전문가와 초보자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비통사적 휴지의 비율에 있어서는 상호 유사한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문가와 초보자 양쪽의 통역결과물에서 주어 다음에 긴 무음휴지가 자주 발생하는 등 비통사적 휴지의 경우 전문가와 초보자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특히 영어-한국어와 같이 어순의 차이가 있는 언어 조합의 동시통역에서는 비통사적 휴지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며 이러한 현상은 전문가, 초보자에 공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3 조음활동 지속: 비유창성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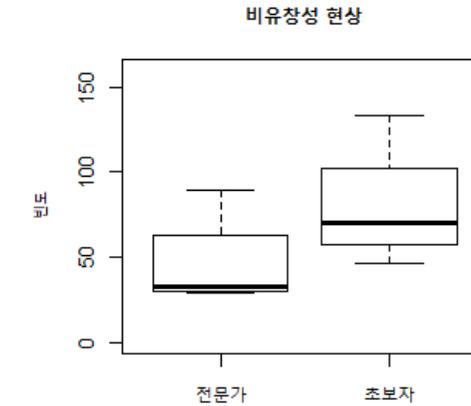
연구대상 통역결과물에서 음성적으로 표현된 비유창성 현상으로서 삼입(발성휴지, 편집표현), 대체(수정, 반복), 도치의 사례를 관찰한 결과는 다음의 표3과 같았다.

<표 3> 비유창성 현상

구분	발성휴지		편집표현	수정	반복	도치	합계
	음절장음화	망설임표지					
전문가1	1	18	0	7	3	0	29
전문가2	1	81	0	14	3	0	99
전문가3	1	25	0	9	1	0	36
전문가4	1	21	0	7	1	0	30
소계	4	145	0	37	7	0	194
초보자1	17	91	0	19	6	0	133
초보자2	7	23	0	11	3	2	46
초보자3	0	33	2	21	2	1	59
초보자4	0	30	0	36	6	0	72
소계	24	177	2	87	17	3	310

<표 3>의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비유창성 현상 중 가장 자주 나타난 현상은 망설임 표지로 대표되는 발성휴지였고, 그 다음으로 수정>반복>도치 및 편집표현의 순서로 나타났다. 사실상 음절 장음화(vowel/consonant lengthening)¹¹⁾는 초보자 1과 2를 제외하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편집표현 역시 초보자 3에서만 ‘아니(아이)’¹²⁾라는 표현이 2회 출현했다. 도치의 경우도 초보자 TT(초보자 2와 3)에서만 관찰되었다. 원문에는 ST1과 ST2를 통틀어 망설임 표지가 단 1회(‘uh’)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동시통역 TT의 망설임 표지는 원문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통역사들의 정보 처리에 있어서의 부하나 자기 감시 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와 초보자의 통역결과물에서 나타난 비유창성 현상의 빈도를 비교하면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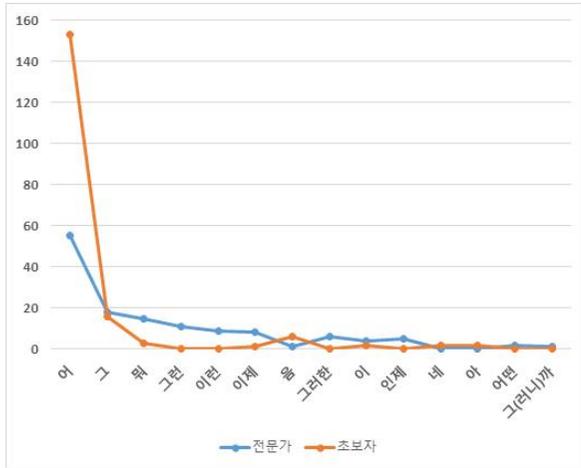


<그림 5> 비유창성 현상

<그림 5>를 통해 분석대상 통역결과물의 비유창성 현상 분포를 살펴보면 전문가와 초보자 사이의 차이가 발견된다. 전문가의 통역결과물에서 초보자에 비해 비유창성 현상이 적게 나타났다는 점은 전문 통역사들은 자기 감시(Won 2011)에 인지 자원을 할당하여 이를 실행하고 있는 반면 초보 통역사들은 자기 감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발화율(<그림 3>)과 유사하게 전문가는 초보자보다 균일한 수행의 경향을 나타낸다.

<표 3>에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난 망설임 표지와 수정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망설임 표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본 연구의 분석대상 통역결과물에서는 ‘어’, ‘음’, ‘뫼’, ‘네’, ‘이’, ‘이런’, ‘이제’, ‘인제’, ‘그’, ‘그런’, ‘그러한’, ‘그(러니)까’, ‘어떤’, ‘아’ 등 총 14종의 망설임 표지가 관찰되었고, 이 중에서 ‘어’가 전문가 통역결과물에서 총 55회, 초보자 통역결과물에서 총 153회 발견되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가와 초보자 통역결과물에서 나타난 빈도순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6>과 같다.

11) 본 연구에서는 음절이 40ms 이상 연속될 때 장음화로 집계하였다.
 12) ‘아니(아이)’라는 표현을 통해 발화자(통역사)가 직전 진술을 부정하고 새로운 표현으로 대체하겠다는 편집 의도를 전달하므로 편집표현으로 분류한다.



〈그림 6〉 망설임 표지

〈그림 6〉의 분포에서 볼 수 있듯이 초보자의 경우 망설임 표지의 대부분이 ‘어’, ‘그’, ‘음’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전문가의 망설임 표지는 더욱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그런’, ‘이런’, ‘그러한’, ‘인제’, ‘어떤’, ‘그(러니)까’라는 망설임 표지는 전문가 통역결과물에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망설임 표지는 망설임이나 주저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어’나 ‘음’에 비해 경우에 따라서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지시사로 쓰이거나 시간 부사(‘인제’의 경우)로도 사용될 수 있는 등 맥락에 따라 해당 어휘 특유의 명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망설임 표지는 상대적으로 망설임의 정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유형을 다양하게 활용한 전문가들의 경우 초보자와 마찬가지로 주저함이나 시간 벌기를 위해 망설임 표지를 구사하면서도 비유창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예시를 위해 아래 <표 4>를 보면 맥락에 따라 내용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유형의 망설임 표지가 사용된 사례에서 이를 ‘어’로 대체할 경우 비유창성이 심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표 4〉 망설임 표지 대체에 따른 비유창성 인상 변화(예시)

구분	통역결과물	‘어’로 대체할 경우
그러한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와도 제 절친한 친구인데 아베 총리도 일본에게 옳은 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세계를 위해서 옳은 결정을 아베 총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좋은 그러한.. 분입니다 (전문가 4)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와도 제 절친한 친구인데 아베 총리도 일본에게 옳은 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세계를 위해서 옳은 결정을 아베 총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좋은 어.. 분입니다
인제	그리고 또 일본의 신조 아베 일본 총리님도 인제.. 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님은 일본을 위해서 또 전세계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원하는 훌륭한 분입니다 (전문가2)	그리고 또 일본의 신조 아베 일본 총리님도 어.. 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님은 일본을 위해서 또 전세계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원하는 훌륭한 분입니다
어떤	캐나다도 굉장히 미국과의 어떤.. 그 무역적자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3)	캐나다도 굉장히 미국과의 어.. 무역적자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여러 국가에 대해서도 이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은 그까.. 저희는 그 취세분 회담을 사실 모두가 만족한 상태에서 마쳤습니다 (전문가3)	제가 뭐 다른 여러 국가에 대해서도 이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만 미국은 어.. 저희는 그 취세분 회담을 사실 모두가 만족한 상태에서 마쳤습니다

전문가와 초보자의 통역결과물에 포함된 망설임 표지를 관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빈도 면에서 초보자에 비해 전문가의 망설임 표지가 적게 나타났고 유형 면에서도 전문가의 경우 망설임이나 주저함의 느낌을 덜 주는 유형의 표지를 다양하게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수정 현상에 대한 관찰 결과를 보고하면 다음과 같다. 망설임 표지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빈도 면에서 초보자(총 87회)는 전문가(총 37회)에 비해 수정 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가일수록 단번에 정확하게 발화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수정의 유형 면에서 비교하고자 수정의 원인과 표지 면에서 구분하고, 조음 후/조음 중 수정으로 구분¹³⁾하는

등의 분류를 시도하였으나 사실상 두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동일항목에 대한 재수정, 수정 2회 연속, 수정 3회 연속, 수정과 발생휴지 복합 발생 등과 같이 둘 이상의 비유창성 현상이 연속되면서 유창성이 크게 저하되는 구간 역시 전문가와 초보자 통역결과물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전문통역사와 초보통역사의 동시통역을 비교함으로써 통역사의 전문성에 따라 통역결과물의 유창성/비유창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 통역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어 왔으나 시간적 변수 및 다양한 비유창성 현상들을 고려한 유창성 혹은 비유창성의 측면에서 전문가와 초보자의 통역 결과물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혹은 보이지 않는지 비교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동일한 원문을 전문통역사와 초보통역사가 통역한 결과물의 유창성/비유창성을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측정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동일 원문에 대한 전문통역사와 초보통역사의 영한 동시통역 결과물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발화속도, 무음휴지, 비유창성 현상을 관찰, 측정하였다. 먼저 발화속도 면에서 전문가의 발화속도는 평균 300spm으로서 일반적인 한국어 뉴스방송의 속도에 근접할 정도로 빠르게 나타나 높은 유창성을 보였으나 초보자의 발화속도는 평균 241spm에 그쳤다. 이에 더하여 원문의 발화속도가 높아질 때 전문통역사의 경우 기존의 통역 속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여 안정감을 준 반면 초보통역사들은 통역 속도가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음휴지의 빈도 면에서 전문통역사(38.5회)는 초보통역사(70.5회)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상대적으로 초보통역사(70.2%)에 비해 높은 발화율(90.2%)을 나타냈다. 반면 평균 휴지의 길이는 전문통역사(1.9초)와 초보통역사(2.1초)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개인별로 전체 휴지에서 발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격을 지닌 비통사적 휴지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전문가와 초보자간 별다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만을 기초로 한다면 통상 약 2초 정도의 휴지와 비통사적 휴지는 통역사의 전문성과 무관하게 동시통역에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발성휴지, 편집표현 등의 삽입, 수정이나 반복 등의 대체, 어순의 도치 등 다양한 비유창성 현상을 조사한 결과 발생휴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수정과 반복, 대체의 순이었다. 비유창성 현상의 빈도를 기준으로 할 때 모든 항목에서 전문가에 비해 초보통역사의 비유창성 현상이 더 높은 빈도를 기록했다. 이러한 정량적인 차이 외에도 정성적인 차이도 발견되었다. 최다 빈도를 기록한 현상이었던 망설임 표지를 별도 분석한 결과 전문통역사들의 통역에서 ‘이런’, ‘그런’ 등과 같이 망설임의 표현 뿐 아니라 지시어로도 사용되는 등 다중 기능을 수행하는 성격을 지녀 유창성을 덜 저해하는 유형의 망설임 표지가 다양하게 구사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어’라는 망설임 표지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초보통역사의 통역에 비해 상당히 유창하게 들리는 효과를 창출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 하였다. 수정의 경우 빈도 면에서 전문가가 유창한 특성을 나타냈으나 동일 항목을 재수정한다든지 수정이나 반복, 발생휴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등 수정의 양상은 공통적이었다.

전문통역사의 통역이 초보통역사에 비해 ‘유창’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로 전문통역사의 통역을 들었을 때 ‘유창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러한 주관적 인상이 어떠한 실제적인 차이에 근거하는 것인지를 측정 결과를 통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전문통역사와 초보통역사들의 유창성 및 비유창성을 측정하여 제시한 수치들이 향후 관련 통역 연구에서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측정 기준을 최대한 상세히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분석 대상 말뭉치의 크기가 작아 일반화에 무리가 따르므로 본고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의 해석 시 이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향후 더 많은 데이터를 고찰함으로써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발화속도와 휴지 및 여러 비유창성 현상을 바탕으로 통역결과물의 유창성/비유창성을 평가하였다. 향후 본고에서 다룬 유창성/비유창성 지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역결과물이 지닌 다른 음성적 특성들, 예를 들어 통역사의 억양이나 피치(pitch) 등과 같은 특성 면에서도 통역의 전문성에 따른

13) Petite(2005)의 수정 유형 구분 참조.

차이가 나타나지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한 한국어로의 통역이라고 하더라도 원문의 언어에 따라 전문통역사의 통역에서 나타나는 유창성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후속 연구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국지연 (2016) 「순차통역에서 나타나는 자기발화수정 양상 연구: 학부생의 한 독 순차통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0(4): 1-24.
- 김한식 (2012) 「방송통역의 충실성과 이해용이성: TV뉴스의 한-일 동시통역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90: 15-24.
- 남길임 (2011) 「담화 유형에 따른 한국어 비유창성 현상 연구」, 『담화와 인지』 18(3): 115-138.
- 박근영 (2006) 「‘이’, ‘그’, ‘저(더)’의 의미 기능 변화」, 『언어와 문화』 2(1): 65-93.
- 송인성 (2013) 「담화표지 ‘뭐’의 기능과 운율적 특성」, 『한국어학』 58: 83-106.
- 심홍임 (2004) 「한국 표준어 화자의 유창성과 말속도에 관한 연구」, 『음성과학』 11: 193-200.
- 이민 (2016) 「통역의 방향성이 도착어 비유창성에 미친 영향: 중한, 한중 순차 통역을 사례로」, 『통번역학연구』 20(1): 49-67.
- 이태형 (2014) 「비전문가에 의한 스튜디오 생방송 동시통역」, 『통역과 번역』 16(3): 147-167.
- 이태형 (2015) 「국제부 기자의 TV 생방송 영한 동시통역」, 『통역과 번역』 17(3): 139-162.
- 장경희, 이필영, 김태경, 김정선, 김순자, 전은진 (2014) 『구어 능력 발달 연구』. 서울: 역락.
- 최문선 (2015) 「순차통역과 동시통역 학습자의 비유창성 양상 분석」, 『통역과 번역』 17(1): 177-207.
- Altman, Janet (1994) 'Error Analysis in the Teaching of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 Pilot Study', in Sylvie Lambert & Barbara Moser-Mercer (eds.), *Bridging the Gap: Empirical Research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25-38.
- Bakti, Maria (2009) 'Speech Disfluencies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 Dries De Crom (ed.) in *Transl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Identities: Selected Papers of the CETRA Research Seminar in Translation Studies 2008* at <https://www.arts.kuleuven.be/cetra/papers/files/bakti.pdf> (accessed 31 October 2018).
- Cecot, Michela (2001) 'Pauses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 Contrastive Analysis of Professional Interpreters' Performances',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1: 63-85.
- Collados Aís, Angela (1998) 'Quality Assessment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The Importance of Nonverbal Communication', in Franz Pöchhacker and Miriam Shlesinger (eds.), *The Interpreting Studies Reader*, London & New York: Routledge, 326-336.
- Dillinger, Mike (1994) 'Comprehension During Interpreting: What Do Interpreters Know that Bilinguals Don't?', in Sylvie Lambert and Barbara Moser-Mercer (eds.), *Bridging the Gap: Empirical Research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155-190.
- Fillmore, Charles J. (1979) 'On Fluency', in Charles J Fillmore, Daniel Kempler, William S-Y. Wang (eds.), *Individual Differences in Language Ability and Language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85-102.
- Han, Chao (2015) '(Para)linguistic Correlates of Perceived Fluency in English-to-Chines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iterature & Translation Studies* 3(4): 32-37.
- Harley, Trevor A. (2014) *The Psychology of Language: From Data to Theory* (4th edition). Hove, East Sussex: Psychology Press, Taylor & Francis Group.
- Hild, Adelina (2011) 'Effects of Linguistic Complexity on Expert Processing during Simultaneous Interpreting', in Cecilia Alvstad, Adelina Hild and

- Elisabet Tiselius (eds.), *Methods and Strategies of Process Research*,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 Co., 249-267.
- Ivanova, Adelina Velikova (1999) Discourse Processing during Simultaneous Interpreting: An Expertise Approach. Ph.D thesis. University of Cambridge.
- Kurz, Ingrid (1993) 'Conference interpretation: Expectation of Different User Group', *The Interpreters' Newsletter* 5: 13-21.
- Lee, Jieun (2008) 'Rating Scales for Interpreting Performance Assessment',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2(2): 165-184.
- Lee, Migyong (2011) 'Working Memory Performance of Expert and Novice Interpreters', *Journal of Language Translation* 12(1): 95-110.
- Lennon, Paul (1990) 'Investigating Fluency in EFL: A Quantitative Approach', *Language Learning* 40: 387-417.
- Lennon, Paul (2000) 'The Lexical Element in Spoken Second Language Fluency', in Heidi Riggenbach (ed.), *Perspectives on Fluenc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5-42.
- Lin, Yumeng, Qianxi Lv and Junying Liang (2018) 'Predicting Fluency with Language Proficiency, Working Memory, and Directionality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Frontiers in Psychology* 9, Article 1543 at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6110880/> (accessed 31 October 2018).
- Liu, Minhua, Diane L. Schallert and Patrick J. Carroll (2004) 'Expertise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A Working Memory Analysis', *Interpreting* 6(1): 19-42.
- McDonald, Janet L. and Patricia A. Carpenter (1981) 'Simultaneous Translation: Idiom Interpretation and Parsing Heuristics',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0: 231-247.
- Martellini, Sara (2013) 'Prosody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 Case Study for the German-Italian Language Pair',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8: 61-79.
- Mead, Peter (2000) 'Control of Pauses by Trainee Interpreters in Their A and B Languages',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0: 89-102.
- Mead, Peter (2005)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Study of Interpreters' Fluency',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3: 39-63.
- Moser-Mercer, Barbara (2000) 'The Rocky Road to Expertise: Eliciting Knowledge from Learners', in Mira Kadric, Klaus Kaindl, and Franz Pöchhacker (eds.), *Translationswissenschaft: Festschrift für Mary Snell-Hornby zum 60. Geburtstag*, Tübingen: Stauffenberg, 339-352.
- Moser-Mercer, Barbara, Uli H. Frauenfelder, Beatriz Casado, and Alexander Künzli (2000) 'Searching to Define Expertise in Interpreting', in Birgitta Englund and Kenneth Hyltenstam (eds.), *Language Processing and Simultaneous Interpreting*, 107-132.
- Park, Soohwan (2016) *Measuring Fluency: Temporal Variables and Pausing Patterns in L2 English Speech*. Ph.D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at https://docs.lib.purdue.edu/cgi/viewcontent.cgi?article=1835&context=open_access_dissertations (accessed 31 October 2018).
- Petite, Christelle (2005) 'Evidence of Repair Mechanism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A Corpus-Based Analysis', *Interpreting* 7(1): 27-49.
- Rennert, Sylvi (2010) 'The Impact of Fluency on the Subjective Assessment of Interpreting Quality',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5: 101-115.
- Shreve, Gregory M., Isabel Lacruz and Erik Angelone (2011) 'Sight Translation and Speech Disfluency: Performance Analysis as a Window to Cognitive Translation Processes', in Cecilia Alvstad, Adelina Hild and Elisabet Tiselius (eds.), *Methods and Strategies of Process Research*,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 Co., 93-120.
- Sunnari, Marianna and Adelina Hild (2010) 'A Multi-factori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and Analysis of Professional Expertise in SI',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3: 33-49.
- Tiselius, Elisabet (2013) 'Expertise without Deliberate Practice? The Case of Simultaneous Interpreters',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8: 1-15.
- Tissi, Benedetta (2000) 'Silent Pauses and Disfluencies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 Descriptive Analysis',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0: 103-128.

Urizar, Xabier and Arthur G. Samuel (2014) 'A Corpus-based Study of Fillers among Native Basque Speakers and the Role of Zera', *Language and Speech* 57(3): 338-336.

Van Besien, Fred and Chris Meuleman (2004) 'Dealing with Speakers' Errors and Speakers' Repairs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The Translator* 10(1): 59-81.

Won, Jong-hwa (2011) 'Effect of Directionality in Self-monitoring Patterns among Korean-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ers',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4(2): 213-234.

Wang, Binhua and Tao Li (2015) 'An Empirical Study of Pauses in Chinese-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ing',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23(1): 124-142.

Yagi, Sane M. (2000) 'Studying Style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Meta: Translators' Journal* 45(3): 520-547.

[Abstract]

An Expert-Novice Comparison of (Dis)fluency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rom English to Korean

Choi, Moonsu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expertise in interpreting from the perspective of fluency/disfluency of interpreting renditions. The assumption that renditions by expert interpreters with professional experience are more likely to be fluent was put to test by comparing English to Korea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by experts and novices. Fluency was measured with a set of variables which represent the speed and smoothness of interpreting renditions. On average, the speech rate of the expert group was 310spm, which was close to the typical rate of Korean speech delivered by TV news personnel, while the novice group fell far behind with an average rate of 241spm. The number of unfilled pauses of 1.0 second or longer were found twice as much in the novice group, indicating the expert group was successful in keeping the speech running smoothly with a lower number of breaks. This naturally led to higher phonation/time ratio for the expert group, which was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greater completeness of their renditions. Also, disfluencies including filled pauses, repairs, repeats and reversal of typical sentence orders were more frequent in the novice group. However, both groups demonstrated similarities in the length of unfilled pauses, distribution of non-syntactic pauses and repair sequences. These similarities suggest the inherent difficulties of cognitive processing involved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 Keywords: simultaneous interpretation, expert-novice comparison, speech rate, pause, disfluency

▶ 주제어: 동시통역, 전문가-초보자 비교, 발화속도, 휴지, 비유창성

최문선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조교수

choimoonsun@ewha.ac.kr

관심분야: 통역교육, 통역전략, 통번역연구방법론, 통번역과 기술

논문투고일: 2018년 11월 4일

심사완료일: 2018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5일